

매일 쏟아져 나오는 출판물의 홍수속에서 지난 한해동안 강행과 출판문화협회 등 특권 어린이관련 단행본 도서수만 4천3백60권, 하루평균 약 12권의 어린이도서가 시내서점에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의 올바른 교육과 성장을 위해 부모들은 과연 어떤 책을 선택하고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

수능시험으로 독서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부모들은 무작정 아이들에게 책임기반을 강요할 뿐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기만 하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발견하고 이를 표현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인 독서를 위해 책을 사고, 읽고, 읽은 다음에 해볼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과 이를 지도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기술에 관한 것이 바로 독서지도다.

“부모 스스로 독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화읽는 엄마』 모임 김선희의 보살이 전하는 자녀독서법

“아이와 같이 불서골라 서로 바꿔 읽고 독후감도 써요”

“아이가! 그래서 선재동자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아들 김진웅(국고 4학년)이 태어나기전부터 불교동화를 읽으며 동화 읽어주기 태교를 했다는 김선희보살.

작년 8월부터 서울 노원지역의 ‘동화읽는 엄마’ 모임의 회원으로 활동, 아이들의 책을 함께 읽고 공부하며 자신의 자녀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를 연구하는 불자 어머니다.

다섯명의 어머니 회원이 모여 우리나라 작가와 동화에 대해 공부하고 동화비평서를 읽고 토론도 하는 ‘동화읽는 엄마’ 모임에서 요즘 김보살은 참교육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한다.

에 대해서 단순한 대화가 아닌 토론을 해요. 책속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주변이야기들의 문제점을 토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속에서 진용이가 느끼고 고민하는 문제들도 알게되고 서로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라고 말한다.

남편과 시부모님까지 모두가 불자가족인 김선희보살은 아들 진용이에게도 불교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어려서부터 불교적 정서가 담긴 동화책들을 먼저 읽도록 유도해 불교에 대한 기초적인 토대를 쌓게하고 그런 다음 거의 모두가 기독교적인 색채를 띤 서양 명작동화를 보게 했다.

이같은 김보살의 현명하고도 자연스러운 독서지도로 불교적 감성을 먼저 느끼고 접하게 된 진용은 어느새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법문왕사 어린이법회에 나가 불법을 배우는 신실 불독한 부처님의 꼬마제자가 되어 있다.

(이은지 기자)

불교동화 읽어주기로 태교...참교육 실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었다. 또 독서기쁨을 더한 것일 뿐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줘 독후감 등 작문실력의 향상도 꾀했다.

진용이의 일주일 평균 독서량은 5권정도. 그 책을 모두 다 읽어본다는 김보살은 “진용이와 읽은 책

자녀독서지도는 이렇게...

부모와 함께읽어야 ‘효과’ 불교동화 정서순화 지름길

책이 가장 중요한 자녀독서 지도법”이라 말하는 영국대 황족자교수(불교아동학과)는 “아이 혼자 하는 독서가 아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을 선택하고 대화와 토론으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함께하는 독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족자교수는 어린이들에게 불교적 정서를 어려서부터 심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부모들이 자라가 등 부처님 전생이야기를 읽고 옛날이야기하듯이 들려주는 것도 정서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열린 마음으로 부모와 자녀와 함께 하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자녀의 독서에 대한 흥미를 돋우는 것이 세련된 독서지도의 기술이라고 교육자들은 말한다.

우리들이 고른 영양분의 섭취로 자라고 유지되듯이 어린이들도 특정부분에 편중된 독서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고른 독서를 통해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만 건강한 사고를 지닌 어린이로 성장해 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은)

만화

법구경

* 꽃의 장 *
* 쓰레기더미 속에서도 연꽃의 향기는



정수는 요즘 좀 어떨어? 걸을 수 없는게 문제지요? 날 명랑해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하고

늦어서 죄송해요

죄송은... 내가 데리고 다녀야 하는데...

영철아 정말 고맙구나

학교 가는 길에 친구랑 같이 가는건 당연한것 아니에요?

나만 아니면 자습 시간 조금이라도 벌텐데...

네 어머니도 그러시고 오늘따라 왜 그러니?

“오늘따라”가 아니고 늘 그런 마음이니까...

부담 갖지마

아니! 학교 안가고 어디 가는 거니?

다른길로 가려고

이쪽 길은 장애물이 있어

너희들도 그리로 가는 거니?

다른길은 계단 때문에 갈 수가 없는데...

영철아 괜찮을까?

글쎄 하지만...

알마! 어딜 모든 책 이리로 오지 못해 지나가

돈 같은거 있는대로 다 내봐

돈은 없는데

돈 없으면 시계같은 귀중품이라도 내놔야 할것아냐

어어 터지기 전에 팔리

이... 이거 내겐 제일 소중한

뭐야?

이화식이 누군데 놀려 이런걸

야! 잠깐

이거 은이야?

응... 응으로 된거야

너, 여러가지 참조해서 이정도로 봐준다

덕행을 온전히 지니고 게으름 없이 부지런하고 바른 지혜로 해탈한 사람은 악마도 가까이 하지 못한다

아! 가자

그 소중한걸 왜 그렇게 나쁜 놈들한테 물건 일지도 몰라

나보다 개들이 더 필요한 물건 일지도 몰라

부처님의 말씀은 곳곳에 깃들어 있으니 그걸로 인해 혹시 모르잖아

그... 그렇다면 내것도 좋겠

한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더미 속에서도 은은하게 향기를 뿜으며 연꽃이 피어 오르듯이

버려진 쓰레기처럼 눈먼 중생들 속에 있으면서도 바로 깨달은 사람의 제자는 지혜로서 찬란히 빛난다

물론 메이(Rollo May)라는 심리학자는 “현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불안이다”라고 말한다. 불안은 미래에 자신에게 무엇인가 불행이 닥칠 것 같은 막연한 걱정을 말하는데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된다. 기령 시련을 친다고 하

막연하지 않다. 시련이라는 뚜렷한 유발요인이 있는 것이다. 시련이 지나가고 나면 불안은 가시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왜 불안하세요,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까?”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런 질문이라도 먼저 보라. 많은 사람들은 “글쎄요...” 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뚜렷한 불안의 원인을 당사자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무의식에 담고 있을 뿐 의식수준에서는 지각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불행행집경에는 이런 정신의학적 이론과 유사한 말씀이 실려 있다.

“열세가지 더러움으로 인하여 마음 속에 불안을 불러 일으킨다. 첫째 불 마 마음으로 행하는 행위가 깨끗하지 못할 때, 둘째 탐욕이 깨끗하지 못할때, 셋째 탐욕으로 심한 애욕에 빠졌을 때, 넷째 마음에 마음을 품을 때,



불분행집경 “탐욕·미움등 13가지 더러움이 근원”

그렇다. 많은 정신과의사들은 이런 불안의 원인을 유년기의 부모 자녀관계나 그와 유사한 의미있는 관계에서의 경험으로부터 해답을 얻고자 한다.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논리다. 당시지는 그런 경험이 너무 오래 전의 경험

때, 열세번째 어리석어 어두운 속에 빠져 있을 때, 공포를 마음 속에서 불러 일으킨다고 적고 있다.

이 모든 마음의 상태가 곧 바로 불안과 공포로 이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과 불안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런 마음의 누적이 쌓이고 난 다음에 불안이 일어나니 정작 불안을 경험할 때 그 원인이 위에 적은 마음들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신치료라는 정신과의 치료는 이런 원인을 통찰시킴으로써 환자가 깨달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후 건강칼럼

<19> 불안

자. 시련을 처하는 수월성이라면 일말의 불안이 있을 것이다. 시련을 잘처하겠다는 긴장은 혹시 내가 시련을 잘 못 처게 될는지 모른다는 걱정이 지나쳐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이때의 불안은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군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뱃길을 밟고 「產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목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통 큰 사나이. 서울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견습사관(소위) 입원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찍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사·사토·미키·후쿠다·스즈키·다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맞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꾼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신국판 /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

中央日報社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